

5^{학년} 제28회 전국 독서올림피아드 시험지(2교시)

이름 :

학교명 :

감독 확인

응시번호 : --

◆ [가]와 [나]를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.

[가]

“너 때문에 놓쳤잖아! 왜 만날 귀찮게 하는 거야?”

일어서고도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장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.

그런데 느닷없이 라찬이가 방긋 웃었다.

라찬이는 사실 숲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, 장미가 도망가면 어쩌나, 걱정이 됐다. 장미가 저를 보고 가 버릴까 두려웠다.

라찬이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장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. 라찬이가 장미를 향해 성큼 발을 내디뎠다.

“미안해.”

라찬이가 말했다. 목소리가 너무 작게 나와 라찬이는 살짝 걱정이 됐다. 장미가 혹시 듣지 못한 건 아니겠지? 라찬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.

“고마워.”

라찬이가 다시 말했다. 이번에 목소리가 조금 크게 나와 다행이었다. 사실 라찬이는 이 말도 장미에게 꼭 해 주고 싶었다. 하고 싶은 말을 하자 가슴이 시원했다. 라찬이가 장미를 보고 싱긋 웃었다.

[나]

나는 장미 엄마, 아빠가 헤어졌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장미가 꼭 나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장미가 얼마나 힘들지, 힘들었을지 이해가 됐어요. 그래서 나는 장미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. 친구가 돼야 장미를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요.

아빠, 이렇게 아빠와 나 사이에 비밀이 또 하나 생겼네요. 사나이 대 사나이로 우리, 서로의 비밀을 꼭 지켜 주기로 해요.

(중략)

아빠, 아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. 내 생각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, 엄마 생각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? 궁금해요. 아빠가 무슨 반찬에 밥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회사에 가는지도 궁금해요. 그리고 보니 나는 아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참 많아요. 왜 평상시엔 물어보지 못했을까요? 후회가 돼요.

아빠, 아빠랑 나랑 엄마가 셋이 다시 같이 살게 되면 그때는 우리 궁금한 것 없이 서로 실컷 묻고 대답하며 살기로 해요. 가끔은 이렇게 비밀 이야기도 서로 털어놓고 말이에요.

- 《늘 푸른 원터마을에서 강라찬 올림》중에서 -

1. [가]와 [나]에서 라찬이가 장미와 아빠에게 다가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써 보세요.

2. 1번에 쓴 내용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경험을 담아 《늘 푸른 원터마을에서 강라찬 올림》의 독서 감상문을 쓰세요.

※ 유의 사항 (유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점됩니다.)

- 1) 학교, 반, 이름은 쓰지 마세요.
- 2) 첫째 줄에는 책 제목이 아닌 내 글의 제목을 쓰고 둘째 줄부터 본 내용을 쓰세요.
- 3) 정해진 분량을 지켜 쓰세요. (800자 정도)

[illegible]

200자

400자

